

삼성·현대차 등 주요기업 미래혁신 주도 '인재 모시기' 사활

**삼성 인공지능·배터리 인재 채용
현대차 연구개발·디자인 등 선발
SK그룹 6개사업 자회사 채용 진행
포스코그룹 미래지향적 인재 우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인재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배터리 등 주요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높은 연봉 등으로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현대차 공식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 상시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의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의 세부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채용 기간 동안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잡페어(Job Fair)와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9월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잡페어는 팝업스토어 형태로 현대차 구성원의 일과 성장, 기업문화를 소개하는 팝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2고로에서 출선하고 있는 모습..

업 전시와 현직자와의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공간 제약없이 현직자와 소통이 가능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도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다.

포스코그룹도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공채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A&C, 포스코IH가 동시에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그룹사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회사는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중 예비

지원자들을 위한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크루팅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선배사원들로부터 직무와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들 수 있다. 또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은 온라인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봉사활동 경험자, 의인상 수상자 등 겸손·존중의 마인드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와 공모전·창업경험자 등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협업해 조직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를 우대한다. 또 AI(인공지능)·빅데이터 역량자, steelChallenge 수상자, 제2외국어 자격 보유자 등 미래지

향적 인재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의 모집분야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보건 ▲마케팅 ▲재무 ▲구매 ▲HR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인적성검사와 1차 직무역량평가, 2차 가치적합성평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한화그룹 방산사업의 한 축을 맡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도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방산이 그룹 내 캐시카우로 떠오른 만큼 인재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구개발(R&D) ▲제조·생산기술 ▲물류·자재관리 ▲품질관리·기술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총 6개 직무에서 세자릿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스페이스 허브 크루' 모집에서도 세자릿수 인원을 채용한 바 있다. 이 크루 모집 당시에도 채용 규모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공고에서도 세자릿수 규모를 채용하겠다고 나서 더 눈길을 끈다. K9 자주포와 정밀유도 무기 '천무'의 폴란드 수출, 호주 '레드백' 장갑차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인력 확보 차원이다. 여기에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포석도 엿보인다.

한화오션 역시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후 첫번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대

상 직무는 ▲연구개발 ▲설계 ▲생산 ▲영업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이다. 한화오션은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 서울 남대문사무소에 연구개발, 설계분야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의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어스온 등 계열 내 6개 사업 자회사에서 직무별로 각각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직무는 ▲경영지원 ▲비즈니스 ▲엔지니어 등이며, 전체 채용인원은 00명 규모다.

Sk이노베이션 R&D를 담당하는 환경과학기술원은 석·박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SK이노베이션은 R&D 분야 우수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산학장학생도 함께 선발할 계획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SK이노베이션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정기 공개채용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해 LG 등도 조만간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도 AI와 배터리, 전장 등을 중심으로 채용에 나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佛·멕시코도 '자국우선주의'...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산업부, 주요 통상현안 논의
자동차·철강·섬유 업계 등 참여
민관역량 결집, 국가별 대응 나서**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

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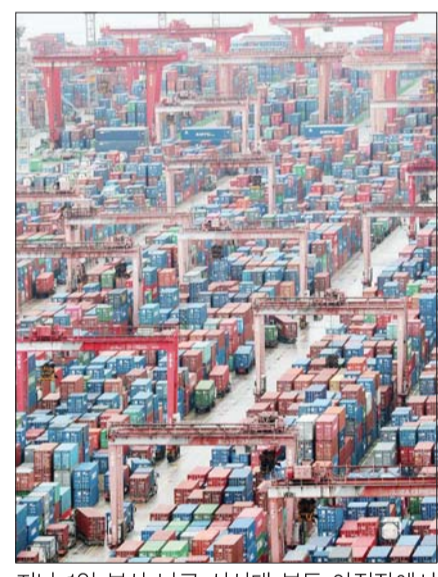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함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

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 수기자 hys@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첨단 기술력으로 폴란드 방산시장 공략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참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이 폴란드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동관 부회장은 5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한화 전시장을 찾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두다 대통령에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화의 첨단 기술력과 폴란드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 등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난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의 우수한 잠항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 등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배터리를 적용해 기존 납축전지 때보다 잠항 시간은 3배 늘린 하이브리드 디젤잠수함이다. 잠수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어 한화 계열사간 시너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폴란드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3~4척을 신규 도입하는 오르카(Ork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3조원대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인프라 '독일·영국' 진출 속도

독일법인 기공식... 건설기계 판매 확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유럽 건설기계 1,2위인 독일, 영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5일(현지 시간) HD현대인프라코어는 독일 만하임에서 디벨론 건설기계 판매 확대를 위한 독일 법인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대표이사를 비롯해 만하임시 크리스티안 슈페이트 최고 시장, 현지 부동산

투자기업 아틀러 그룹의 알렉산더 아틀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독일 법인 사업장은 1만 650㎡(약 3200평) 규모의 부지에 지상 3층의 사무동과 트레이닝 센터, 서비스 센터, 부품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독일 법인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유럽에서 처음 도입하는 직영판매점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성운 기자